

#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IT 정책

## China's Western Region Development and IT Policy

전황수(H.W. Chun)

정보기반연구팀 선임연구원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남부 및 동부 연해를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서부지역은 개발이 지체되어 지역격차가 심화되었다. 중국정부는 균형발전과 내수진작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정치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4대프로젝트(천연가스 연결, 수력발전소 건설, 양자강수로 황하 연결, 환경보호 위한 식목사업) 외의 정보통신부문은 IT 기술 확대적용, 정보화 촉진,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무한의 광통신벨리, 사천성의 서부실리콘벨리, 서안의 중국판 실리콘벨리 구축 등이 있고, 시장확대와 신규수요 창출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I. 서론

중국은 1978년 개방 이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으나 주로 남부 및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 지역개발에 경주하였다. 그 결과 서부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개발이 지체되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동서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서부지역은 6개성과 5개 자치구, 1개 직할시로 구성되어 중국 전체면적의 56%, 인구의 23%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서부대개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부대개발의 목표는 동서간 균형발전, 내수진작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정치안정 도모이며, 주관부서는 서부개발영도소조변공실(西部開發領導小組辦公室)이고 조장은 국무원 총리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1999년 말부터 중앙정부의 집중 지원 하에 서부지역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수립과 기초건설에만 5년, 완성에는 50~10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요재원은 8조 위엔으로 1999년

중국의 GDP와 비슷한 규모이다.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정, 국채발행, 외국차관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중점사업은 천연가스 개발, 수력발전 건설, 양자강수로 연결,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산림녹화 등 환경보호, 철도 등의 인프라 구비 등이다.

서부대개발에서의 정보통신부문은 추진전략에서 송신네트워크 구축, IT 기술 확대적용, 정보화 촉진 등이고, 3개의 동서지역과 1개의 남북간에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무한(武漢)에 광통신벨리를 구축하여 광통신하드웨어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사천성(四川省)에 서부실리콘벨리 건설로 정보전자산업 생산 증대를 도모하며, 서안(西安)에 중국판 실리콘벨리를 추진하여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설립할 예정이다. 한편, 서부대개발에서 초고속망통신사업은 차이나 텔레콤이 서부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본 고에서는 서부지역의 현황, 서부대개발의 목표와 개발사업, 서부대개발에서의 정보통신부문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중국의 현대화와 서부지역의 낙후

서부지역은 사천(四川), 감숙(甘肅), 귀주(貴州), 운남(雲南), 협서(陝西), 칭하이(青海省) 등 6개 성과 영하(寧夏)자치구, 신강(新疆)자치구, 내몽골(內蒙古)자치구, 광서(廣西)자치구, 서장(西藏)자치구 등 5개 자치구, 중경(重慶)시 등 1개 직할시로 구성되었다[1].

<표 1>에서 보듯이 면적은 54.5만km<sup>2</sup>로 중국 전체의 56%를 점유하나 인구는 2.88억 명으로 중국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또 티벳족, 위그르족 등 대다수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은 2000년 1인 당 GDP가 567달러로 전국 평균 855

달러의 66.3%에 불과하며 중국 전체 극빈층 8,000만 명 중 절반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서부 지역 농민의 1년 수입은 연해지역 농민수입의 1/3에 불과하고, 국내 전체 GDP의 14%를 점유하고 전체 대외무역의 3%를 담당한다. 천연자원은 중국 전체 수자원의 82%, 천연가스의 86%, 석탄의 36%를 점유하는 등 풍부하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2].

<표 2>에서 보듯이 중국은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표 조사결과를 참고로 한 전반적인 현대화 수준은 세계 62위에 불과하고, 31개 성, 시 중 비교적 발전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3개뿐이다. 특히 중서부지역의 28개 성, 시는 겨우 초급 발전단계에 들어섰거나 미발전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는 개혁개방 이래 동부연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 불균형 발전노선을 걸어와 동부연해지역과 남부연해지역은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은 불리한 지리적 여건과 인프라의 미비로 개발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다. <표 3>에서 보듯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던 1978년에는 동부-중부-서부지역간 국내총생산 비율이 1.9:1.3:1이었으나 1999년에는 2.4:1.3:1로 격차가 심화되었다.

<표 1> 서부지역의 개요

지역범위	사천, 감숙, 귀주, 운남, 칭하이, 산서성, 중경시, 영하, 티벳, 신강 등 10개 성·시·자치구
면적	54.5만km <sup>2</sup> (중국 전체의 56%)
인구	2억 8,800만 명(중국 전체의 23%)
소득수준	중국전체 GDP의 14%, 중국 전체 극빈층 8,000만 명 중 절반이 이 지역에 거주, 서부지역 농민의 1년 수입은 1,200위엔(17만 원)으로 연해지역 농민수입의 1/3 수준
천연자원	중국 전체 수자원의 82%, 천연가스의 86%, 석탄의 36%

<자료>: 유진석, 중국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1. 2., p. 23.

<표 2> 중국의 현대화 지표

항목	기본현대화 표준지표	현대화 표준지표	실제지표	기본현대화 실현정도	현대화 실현정도
총체적 실현정도(%)	-	-	-	61.6	47.9
1인 당 GDP(달러)	6000 이상	1만 이상	900	15	9
3차산업의 GDP 점유비중	55 이상	65 이상	33.6	61.1	51.7
인구도시화 수준(%)	55 이상	65 이상	37.7	68.5	57.9
비농업화 수준(%)	75 이상	90 이상	50	66.7	55.6
엔겔계수(%)	35	25	44.1	79.4	56.7
영아사망률(%)	20 이하	10 이하	32	62.6	31.3
고등교육 진학률(%)	25 이상	35 이상	6	21	17.1
인구 만 명 당 의사 수(명)	20 이상	25 이상	16.4	81.9	65.5
정보화지수	150 이상	250 이상	86	57.3	34.4

<자료>: 중국과학원, 2001년 기준(2003. 2. 13. 발표)

<표 3> 동부-중부-서부 지역 GDP 상대비교

구분	동부	중부	서부
1978년	1.9	1.3	1
1995년	2.3	1.3	1
1999년	2.4	1.3	1

<자료>: KOTRA, China Hotline, 2003. 3.

### III. 서부대개발의 목표와 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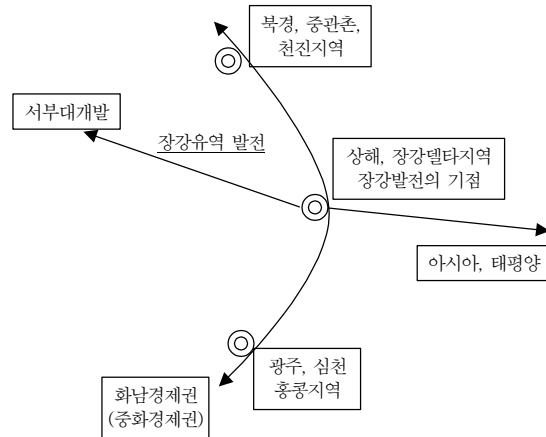
#### 1. 서부대개발의 근거

서부대개발의 근거는 덩소평의 ‘양개대국론(兩個大局論)’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즉 동부 연해지역의 유리한 요소를 활용하여 선개발하고(先富論), 중서부 지역의 개발에 활용하여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정부의 3단계 경제발전전략은 제1단계 온포(溫飽: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단계)로 1990년대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제2단계 소강(小康: 여유있는 생활)은 2000년에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 제3단계는 21세기 현대화 단계를 통해 부강하고 문명화된 민주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것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서부개발이 필수적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지역간 경제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자원분포와 산업분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서부대개발의 기치아래 공식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2. 서부대개발의 목표

2000년 3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자회의(全人代)에서 동서간 균형발전, 내수진작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정치안정 도모를 위해 서부대개발 추진을 공식으로 천명하였다. 즉, 서부개발을 통하여 심각한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낙후된 서부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며, 개혁·개방 이후의 동서간 빈부격차 확대, 이로 인한 지역적 불만,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계획이다(그림 1) 참조).

주관부서는 서부대개발영도소조변공실이고, 조장은 국무원총리가 직접 맡고 있다. 구성원은 국가발전



<자료>: 유진석, 중국 IT 산업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1. 9., p. 33.

(그림 1) 중국의 지역적 발전 개념도

계획위 주임, 재정부장, 인민은행장, 교통부장, 농업부장, 철도부장 등 20개 부서장이다. 조직은 정책기획(서부개발 정책수립), 환경(생태환경정책 시행), 경제사회발전(인프라 건설, 산업구조조정)팀 등 3개 팀(2000년 3월 출범)으로 편성되어 있다[3].

#### 3. 경과

연해지역 개방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9년 말부터 중앙정부의 집중적 지원 하에 서부대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부터 시작되는 제10차5개년 사회 및 국민경제발전계획(10.5: 2001년~2005년) 기간 동안 그 기초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부대개발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으나 워낙 인프라 기반이 열악하여 성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국정부도 계획수립과 기초건설에만 5년을 잡고 있으며, 완성에는 50~100년을 예상하고 있다. 소요재원은 8조 위엔으로 추정되며, 이는 1999년 중국의 GDP 규모와 비슷한 액수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는 중앙정부 재정, 국채발행, 외국차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표 4>에서 보듯이 서부대개발 2000년 추진 10

<표 4> 서부대개발 2000년 추진 10대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투자규모(억 원)	내용
西安-合肥 철도	232	총연장 995km
重慶-회화철도	182.3	649km
서부간선도로 건설	-	1,700km
서부공항 건설	-	西安, 成都, 蘭州 등
重慶 고가도로 건설	32.5	13.5km
青海, 蘭州 가스공사	-	연간 20억m <sup>3</sup> 가스수송
발전 및 수리시설	75	成都 및 寧夏 回族 자치구
황무지 조립사업	-	43만ha 인공조립, 초원조성
칼륨비료 플랜트 건설	-	青海省 영호지역
고등교육 기초시설	(국채발행자금이용)	서부 전지역

<자료>: 「文辰報」, 2000. 5. 7.

대 프로젝트로는 西安-合肥 철도, 重慶-회화철도, 서부간선도로 건설, 서부공항 건설, 重慶 고가도로 건설, 青海, 蘭州 가스공사, 발전 및 수리시설, 황무지 조립사업, 칼륨비료 플랜트 건설, 고등교육 기초 시설 등이 있다[4].

#### 4. 교통망의 확충

교통인프라에서 도로망의 기본목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의 교통망을 2005년까지 전부 연결(라싸, 우르무치 제외)하고, 대외거래망 확보를 위한 해상연결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2001년 말 현재 서부 지역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길이는 총연장 69.9만km(고속도로 약 4,500km)에 달했으며, 서부 지역의 도로건설 작업은 근년 들어 동부나 중부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8~2001년 4년간 중국의 도로 증가속도를 보면 동부지역 18.5%, 중부지역은 32.2%인데 반해 서부지역은 50.9%로 서부지역의 도로망 건설이 상당히 활발한 편이다. 특히 쓰촨, 충칭, 꾸이저우 등이 속한 서남부 지역의 교통망이 간쑤, 신장 등 서북부지역에 비해 교통망이 보다 잘 정비되어 있다(서남부지역의 도로망은 총 42.8만km로 서부전체의 61.3%, 고속도로의 경우 3,114km로 서부고속도로망의 69% 점

유). 도시간 및 도시내 고속도로 건설로 청뚩, 시안, 충칭, 쿤밍 등 주요 중심 도시들은 인근 주변 지역과의 고속도로망을 확충하고 있는 한편(도시별로 3~6개의 인근도시 연결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으며, 추가 건설중임) 도시를 순환하는 외곽고속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뚩, 시안의 경우 이미 순환고속도로 및 도시 내부 고속도로(삼환로)가 완공된 상황이며, 충칭, 쿤밍 등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망의 기본목표는 서부와 동부 연결 철로 건설 및 확장(시안→난징, 쿤밍→청뚩→상하이), 철로 전기화 확대, 칭하이-라싸간 철로 연결 등이다.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철도부는 2001~2005년 5년간 서부 철도 건설에 1,270억 위안(한화 약 19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그중 서남부 지역에 660억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부에 따르면 서부지역의 철도건설이 중국의 10차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10.5 2001~2005)기간 중국철도건설의 중점대상이 될 것이며, 2005년이 되면 서부지역의 철도망은 2.52만km, 그중 서남지역은 1.14만km에 달하게 된다. 현재 서남부지역의 철도 중 46%가 전기화되어 전기화 수준으로는 전국 평균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향후 철도 건설 중점지역은 칭하이성 시닝과 시장라사의 각 구간 공사들로 현재 진행 또는 추진중이며, 수이닝(瀋寧)-충칭(重慶), 용저우(永州)-위린(玉林), 판야(汎亞) 지역은 철도의 신규 건설을 계획중이다[5].

#### 5. 4대 프로젝트

서부대개발의 4대 프로젝트는 서기동수(西氣東輸: 서부지역의 천연가스를 상하이까지 연결), 서전동송(西電東送: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동부 연안지역으로 송진), 남수북조(南水北調: 양자강수로를 황하로 연결), 퇴경환림(退耕還林: 환경보호를 위해 농지에 나무심기) 등이다[6].

서기동수(西氣東輸)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로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간선의 총길이가 4,212km로 신장타림분지 룬난(倫南)유전을 기점으로

로 중서부지역을 경유하여 상하이에 도달하는 것으로 1차 투자액 555억 위안, 2007년 완공계획으로 연간 가스수송능력 240억<sup>3</sup>, 공사는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동, 서부지역의 에너지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이프라인 인근 서부지역의 철강, 시멘트, 기계, 전자, 건축 분야의 발전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67%의 파이프라인이 서부지역에서 가설되기에 재정수입 증가, 취업 기회 창출 등 서부개발을 촉진하고, 외국투자자를 적극 유치하여 파이프라인의 건설, 운영, 관리를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외국투자가가 지배주주가 될 수 있고, 도시가스파이프망 건설의 대외개방, 투자형태 제한 철폐, 외국투자자들의 경영범위 확대에 따른 정책적 우대 향유, 설비수입에서 투자총액 내에서 수입한 자체사용설비 무관세, 토지사용에서 지하통과권 심사·비준으로 해결 등 6가지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12년 29일 중국정부는 Shell, Gaxprom 및 홍콩 중화가스 등과 ‘西氣東輸 합작경영 기초단계 협의서’를 체결하였다[7].

서전동송(西電東送)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을 동부연안지역으로 송전하는 프로젝트로 중국 정부는 서부대개발의 일환이자 중국 전체의 전력수급을 위한 계획으로 전력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의 전기를 개발하여 동부로 송전한다는 계획 하에 발전소 건설 및 송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으며, 송전망은 기본적으로 남부, 중부, 북부의 세 망으로 구성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부송전망은 귀주(貴州)성의 우강(烏江), 운난(雲南)성의 란창강(瀾滄江)과 광서(廣西)-운난-귀주 세 지역의 접경지인 난판강(南盤江), 빼이판강(北盤江), 홍수이하(紅水河)의 수력발전자원 및 귀주, 운난 두 성(省) 광산지역 화력발전소의 전기에너지를 개발하여 광둥(廣東) 지역으로 송전하는 전력망을 형성할 계획이다.

중부송전망은 삼협과 진샤강(金沙江)지류의 수력 발전을 주로 화동지역(상하이, 지안쑤, 저지안 등)으로 송전하는 전력망을 형성하는 공사이다. 2003년

5월부터 동 송전망을 통해 쓰촨의 전력을 동부로 송전하기 시작하였고, 삼협댐이 완공되어 발전을 시작하면 전력을 송전할 송전망 860km가 형성되었으며(삼협-후뻬이 우후(蕪湖)-안후이-장쑤) 삼협댐 발전소 발전기 1기가 가동되면 바로 송전할 예정으로 송전량은 300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현재 상해 전력사용총량의 30% 규모).

북부송전망은 황하 상류의 수력발전과 산서(山西), 내몽고(內蒙古) 광산지역의 화력 발전을 베이징, 천진, 당산지역으로 송전하는 전력망을 형성하고 있다. 기본적인 송전은 500kW 송전선을 이용할 계획이다. 현재 산시 셴터우(神頭), 내몽고 툽커튀(托克托), 허취(河曲), 따라터(達拉特) 등 4개 화력발전소의 확대 및 신규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퇴경환림(退耕還林) 프로젝트는 환경보호를 위해 농지에 나무를 심는 것인데 이에 따라 경작지를 삼림으로 전환하는 공정이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되어 2002년 11,548만 무의 삼림을 조성하였다. 이중 삼림으로 되돌린 경작지 면적은 5,582만 무, 민동산 면적은 5,966만 무에 달한다. 3년 동안의 삼림조성 공사는 서부지역 농민의 양식과 종묘재배를 직접적으로 증가시켰으며, 200여 억 위엔의 보조소득을 증가시켰다[8].

## 6. 투자 및 효과

<표 5>에서 보듯이 사회기초시설 및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투입으로 중앙정부 재정성 건설자금의 서부지역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2,700억 위엔이 투입되었으며, 그 중 사회기초시설(인프라시설)에만 2,000억 위엔, 생태환경보호 분야에 500억 위엔, 사회사업분야에 100여 억 위엔이 투입되었다. 장기건설국가채권자금 중 1/3을 넘는 1,600억 위엔이 서부개발에 사용되었으며, 중앙정부재정 중 3,000억 위엔이 서부지역으로 이전지출되었다. 서부지역 각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6,000여 억 위엔에 달하였다.

중국국무원 산하 서부대개발관공실 자료에 따르

<표 5> 2000~2002년 3년간 서부대개발 주요 지표

항목	내용
고정자산투자	18.8% 증가(전국 평균보다 6% 높음)
GDP	9%
정부재정건설자금	2,700억 위엔 투입
장기건설국채	1,600억 위엔 투입
금융기관대출액	6,000억 위엔 투입
도로건설	5.5만km
철도	4,000km
공항건설	31개

<자료>: KOTRA, *China Hotline*, 2003. 4. 15.

면 서부대개발 정책의 시행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서부지역에 상당량 투입되는 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정부는 서부대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관공실이 발표한 자료 중 지난 3년간 진행상황을 정리해보면, 서부대개발 정책이 시작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서부지역은 상당히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간 서부지역에 대한 고정자산투자는 연평균 18.8%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전국 평균수준에 비해 6%나 앞섰고, 2002년에 22.4%나 증가하였다. GDP는 연평균 9%의 성장추세를 보여 1999년의 7.2%에 비하여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2년에는 성장률이 9.9%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과 전국 각지간의 경제성장속도는 1999년 1.5% 차이에서 2002년에 0.6% 감소되었다[9].

#### IV. 서부대개발과 정보통신사업

서부대개발에서 정보통신부문은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분야를 유추하여 살펴보면 통신진흥과 정보화 촉진, 무한의 광통신밸리(光谷프로젝트), 사천성의 '서부 실리콘밸리' 계획, 서안의 '실리콘밸리' 추진, 초고속통신망 건설 등 5가지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서부대개발계획에서의 통신진흥과 정보화 촉진으로 송신네트워크의 구축 강화, 정보통신기술

의 확대적용, 서부지역 경제사회개발에서의 정보화 촉진 등이다. 3개의 동서지역과 1개의 남북간에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시아와 유럽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또 서부지역의 성들과 자치구들을 연결하는 광케이블, 극초단파, 위성통신 등의 주요 네트워크가 구축되거나 개선되고 사용자들의 네트워크 접속이 향상되는데, 특히 농촌지역의 고정유선전화망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 그 외에 이동통신망의 강화, 컴퓨터정보망의 개선, 공공정보서비스플랫폼의 개발, 우편서비스망의 구축 강화, 라디오 및 TV 방송의 서비스지역 확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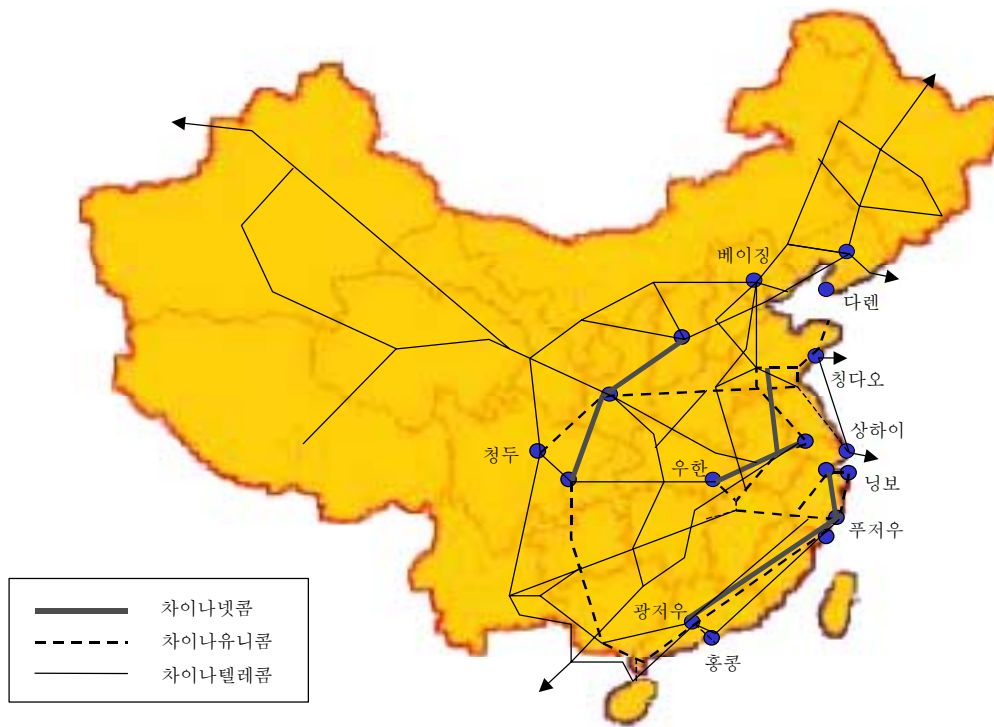
둘째, 무한의 광통신밸리(光谷) 프로젝트로 서부지역의 관문인 무한지역에 광통신밸리 프로젝트(中國國家光電子信息產業基地)를 구축하는 것으로 무한시에 있는 기존의 동호신기술개발구(東湖新技術開發區) 내에 광통신 하드웨어업체를 밀집시켜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단지내 23개 대학과 50개 연구소, 100개 생산기업이 초보적인 산학연 체제를 구비하고 있다. 단지내 대표적인 업체인 長飛광케이블사는 수출액이 연간 3,000만 달러에 달하며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광통신망 케이블을 전량 납품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광통신밸리는 광통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광통신 시스템, IP 인터넷설비, 이동통신단말기 및 시스템, 위성활용 위치추적시스템(GPS), 교통통제시스템, 의료용 레이저기기, 데이터 저장장치, 비디오폰,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도 주요한 입주 대상 분야이다.

셋째, 사천성의 '서부 실리콘밸리' 계획으로 사천성은 정보산업을 사천성 서부개발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 하는 '서부지역 실리콘밸리'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 계획은 5년 내에 사천성의 정보전자산업을 생산증가치 400억 위엔과 판매수입 1,000억 위엔,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도 30%에 도달함과 동시에 '6개 기지, 1개 센터, 1개 시장'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6개 기지'는 사천성을 서부 최대 소프트웨어 생산화 연구

생산기지, 서부 광통신산업 개발·생산기지, 서부집적회로 설계 및 생산기지, 국가급 정보안전상품 생산기지, 서부최대 전자정보제품 생산기지, 서부 전자정보 인재배양, 교육기지화 등이다. ‘1개 센터’는 공공정보네트워크 건설, 전자화 정부 및 농촌정보공사의 건설을 중점으로 서부 최대 네트워크 교환 및 정보서비스센터 건설이다. ‘1개 시장’은 성도(成都)의 과학기술거리(컴퓨터시장), 太升路和 大發전자통신전문시장, 성황묘, 五塊石(가전제품 및 부품시장)을 기반으로 전문품목 분업화를 통해 서부지역 최대 전자정보제품 교역 및 서비스시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천성은 동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자정보산업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30조의 우대정책을 발표했는데 투자액 80억 위엔을 초과하거나 집적회로 선의 폭이 0.25 $\mu$ m 보다 작을 때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부여하였다. 기술서비스 소득에 대한 일정기간 소득세 면제, 중국에 재투자 예정인 세금 외의 이윤은 외국화폐로 전용 계좌번호에 저축을

허용하고 외국화폐 관리부문에서 감독, 집적회로 설계기업이 설계한 집적회로가 중국 내에서 생산불가 시 외국에서 CPU를 생산할 수 있고, 동 제품을 수입시 우대세율 적용, 전용공단 토지구입을 최저한도 가격으로 제공, 成都高新技術開發區와 綿陽科技城에서는 동 지역내 소프트웨어 업종 중사기업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3년간 임대료 면제, 사회자본, 외국자본의 전자정보산업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용자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서안의 ‘실리콘밸리’ 추진으로 2002년 4월 협서성 성도 서안 일대에 서부대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과학기술 단지를 설립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의약, 생물기술, 신소재, 환경보호 및 우주항공 등의 첨단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인데 이 지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서부지역 IT 산업의 핵심으로 현재 IT 산업과 관련해 약 560억 위엔(8조 9,600억 원)의 역내총생산을 기록하여, 향후 전국적으로 영향을



<자료>: 레드헤링

(그림 2) 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망 부설 현황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0].

다섯째, 초고속통신망 건설로 서부대개발에서 공식적인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별도의 계획은 책정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휴대폰과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통신사업자들간에 음성 및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초고속통신망 구축 노력이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뿐만 아니라 차이나넷콤 등 신생업체들까지 구축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차이나텔레콤은 중국의 주요 도시를 10Gbps 급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외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서부의 변방지역까지 기간(백본) 통신망을 건설할 계획이다[11].

## 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국의 서부대개발은 개발에 따른 시장확대와 신규수요 창출로 국내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아직은 미발전 단계이나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어, 미국의 골드러시처럼 막대한 개발 자금이 유입될 예정으로 우리기업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진출노력이 요구된다. 우리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중동진출 경험을 갖고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한데, 서부지역은 동부연해지역이나 남부연해지역과 매우 상이한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 지역은 한족보다 티벳족, 위그르족 등 빈곤한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고 그들은 한족에 대한 반감이 강하므로 진출시 이들의 문화나 생활양식, 의식 등을 고려해야 하며, 기업들은 진출시 물적, 인적자원, 기술의 발전정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편, 중국 중앙정부와 서부지역의 각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각각의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서부대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공사는 상당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은 프로젝트가 계획 입안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시장 진

출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이며 실질적인 조사와 접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서부대개발과 관련된 인프라공사는 관련 부문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그 산하 기구, 국영기업 등 상당히 다양한 주체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괄적인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무한 광통신벨리 건설에서 한국 벤처기업의 진출인데 입주대상인 광통신시스템, IP 인터넷설비, 이동통신단말기 및 시스템, 위성활용 위치추적시스템(GPS), 교통통제시스템, 의료용 레이저기기, 데이터 저장장치, 비디오폰,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로 적극적인 진출 타당성을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초고속망 구축과 cdma 이동통신사업의 진출인데, 서부지역에 대한 초고속망 통신망 구축은 최대사업자인 차이나텔레콤이 담당하고 있다. 인프라의 미비와 열악한 조건으로 단기간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우리의 앞선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차이나 텔레콤과의 제휴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동통신에서도 기존의 차이나유니콤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향후 cdma 기술의 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www.chinawest.gov.cn
- [2] 유진석, 중국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pp. 23-24.
- [3] 유진석, 중국 IT 산업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1. 9., pp. 31-35.
- [4] 김정계, 중국 서부대개발의 전략적 배경과 문제점, 국가전략, 제7권 2호, 세종연구소, 2001. 6., p. 22.
- [5] KOTRA, China Hotline, 2001. 10. 16.
- [6] www.chinawest.gov.cn
- [7] KOTRA, China Hotline, 2002. 7. 16.
- [8] KOTRA, China Hotline, 2002. 10. 8.
- [9] KOTRA, China Hotline, 2003. 4. 15.
- [10] 문화일보, 2002. 4. 12.
- [11] 디지털타임스, 2002. 4. 14.